

포천시 문화예술단체장 10 회계문화사랑방 대표 양유택

봉래 양사언 추모 백일장 대회 계속돼야

“우리의 지나는 삶을 되돌아보고 현재를 생각하며 미래를 준비함으로서 후손 만대까지 남겨줄 우리 고장 일동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고 문화를 기구어려 하겠다는 일념으로 회원들이 저마다 조금씩 경비를 부담하여 이 작은 책이 햇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략) 오조록 문화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우리 일동 지역이 자연과 문화가 균형을 이루어 더욱 살기 좋은 마을로 발전하는데 이 ‘청계문화’가 작은 불씨 역할이라고 할 수 만 있다면 저희들은 더 이상 바램이 없습니다.”

이상은 1998년 8월 청계문화사랑방 회원 일동이 청계문화 창간호를 발간하면서 밝힌 머리말이다. ‘청계문화’는 1998년부터 2002년도까지 5호를 발행하고 제 6호는 2007년 4월말에 발행될 예정이다.

청계문화사랑방 양유택(68·사진)회장은 “그동안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처음에 뜻을 같이했던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포천시에서 100만원을 지원받아 4월말에 청계문화 제6호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 회장은 포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32년을 근무한 후 고향으로 돌아와 학교에 봉사하고 문화

원에 가입하여 16년째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포천문화원 부원장으로 활동중이다. 포천향교 감사, 포천유도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양 회장은 “청계문화사랑방에는 회장이라는 직책이 없고 돌아가면서 업무를 처리했으나 2002년도에 초대회장으로 취임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청계문화사랑방이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재정문제라고 한다. 책을 발간하기 위해 회원 1인당 5만원을 받고 있으나 책을 출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애로사항 해결책으로 양 회장은 “회원을 많이 확보하고 회원의 질을 향상시키며 포천시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서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재경 일동종·고 총동문회와 긴밀하게 연락하여 재정은 물론 편집자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토를 사랑하고 자연을 보호하며 자연과 인간이 서로를 아끼며 공존하는 분위기를 위해서 풀 한포기, 나무 한 그루, 풀맹이 하나까지도 사랑하는 문화가 기구

어 나가고 있는 청계문화사랑방 회원의 자격은 일동면에 거주하는 주민과 일동면 출생 인이다. 양 회장은 “청계문화사랑방이 지는 활동과 그 활동을 책으로 출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로 면단위 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사랑과 용기를 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이 일을 위해 지역의 큰 신문으로서 포천신문이 문화유산과 선조들의 업적, 특히 선비정신 시리즈로 게재되고 큰 지면으로 할애해주심에 대해 향토인으로서 무한한 고마움을 느낀다.

시사적인 면도 중앙지 못지 않게 비판하는 내용을 보도하여 포천신문 위상이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럼 없이 자랑스러워 한다.

따라서 자생적으로 발생하여 움직이고 있는 것을 모든 시민이 알도록 상세한 보도를 통하여 홍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양 회장은 특히 우리 관내에서 발행되고 있는 문학지의 발행단체와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문학 발표회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계획은 청계문화사랑방이 관내 오프믹스 축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숲속수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봉래 양사언



추모 백일장을 개최하여 자라나는 후대들이 훌륭한 선조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양 회장은 회원들에게는 모두가 주인공으로 아낌없는 자세로 참여하여 청계문화사랑방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자고 밝혔다.

특히 2002년도에 제1회 봉래 양사언 추모 학생 백일장을 개최한 청계문화사랑방은 앞으로 이 대회를 발전시켜 15세기에 세상을 밝힌 선조들의 등불이요, 충효 윤리의 향도 봉래 양사언 선생의 정신을 계승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청계문화사랑방에 참여한 회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김수남 ▶김인필 ▶김태중 ▶김현근 ▶이원규 ▶이철학 ▶임일선 ▶전성수 ▶조요환 ▶한웅 ▶김영해 ▶양유택 ▶최원용 ▶최용길 ▶허범철 ▶동영탁 ▶양운삼 ▶이진관 ▶서성남 ▶원공재 ▶김서진 ▶김원진 ▶서정숙 ▶신숙기 ▶심민숙 ▶이종향 ▶임종석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韓國의 선비정신 · 61

구국(救國)의 문장가 이정구(李廷龜)

이정구 : 1564(명종 19) ~ 1635(인조 13)는 연안이자 관동파(館東派)로 자신과 그 사촌들의 현달에 힘입어 17세기의 문화학술계를 주도하며 명실공히 삼한의 갑축으로 성장한 가문이다.



리효중 포천한시사 대표

자는 성징(聖徵), 호는 월사(月沙), 윤근수(尹根壽)의 문인. 문과에 급제후 승지, 참판을 거쳐 대제학(大提學), 형조·병조·예조판서를 역임하고 1628년(인조 6) 우의정에 승진, 이어 좌의정 역임.

문헌대가(文獻大家)로 신흥(申興), 장유(張維), 이식(李植)과 함께 조선 중기의 사대문장가(四大文章家)로 일컬어진다.

이정구가는 문장과 학문을 가풍으로 전수하여 조선왕조 최후 3대가 나란히 대제학정구(廷龜)--명한(明漢)--일상(一相)을 지내는 3대 문형(文衡)의 금자탑을 세우게 하는 무수한 저술활동을 통해 17세기 최고의 문벌을 형성, 시화학파(澗湖學派)의 학풍을 진작하였을뿐 아니라 중국에까지 그 명성을 크게 떨쳤다.

부인 권씨(權氏)는 판서 극치(克智)의 딸인데 덕행(德行)이 있었다. 백주(白洲) 이명한(李明漢), 현주(玄洲) 이소환(李昭煥) 두 아들도 모두 현달(顯達)하였으나, 집안을 검소하게 다스리며 화려한 복장을 일찍이 몸에 가까이 한 적이 없었다. 그 때 정명

공주(貞明公主:인목왕후의 소생이며 흥주원의 아내)의 집에서 며느리를 맞아들일 때 주상이 일국의 명부(命婦:공중 및 종친·비속아치들의 아내로서 품계가 있는 내명부·외명부)에게 명하여 잔치에 참여하게 하니, 여러 재상의 부녀가 앞을 다투어 화려한 복장으로 잔치에 참여하여 구술·비취·비단인 눈을 현란하게 하였다.

후후에 가마 한 채가 들어오는데, 한 늙은 부인이 갈포(葛布) 저고리와 삼베 치마 차림으로 매우 거칠고 나쁜 옷감이었다. 마루에 오르려 할 적에 주인인 정명공주가 신발을 허겁지겁 신고 내려가 맞이하니, 나이 젊은 여러 부녀들이 모두 손가락질하며 비웃다가 놀라 의아하게 여기면서 어느 집 부인인지 알지 못하였다. 공주가 상좌(上座)에 맞아 앉고 예를 닮음이 매우 공손하니 사람들이 더욱 의아하게 여겼다.

다. 음식을 다 먹은 뒤에 그 늙은 부인이 먼저 일어나서 돌아가기를 고하므로 공주가 해질 시간이 아직 이르다고 만류하니, 늙은 부인이 말하였다.

“저희 집 대감이 약방도제조(藥房都提調)로 새벽에 이미 대궐에 나아가고, 맏아이는 이조판서로 정석(定席 : 관리임용을 의논·처리 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있으며, 둘째 아이는 승지로 속직을 하고 있으니 늙은 이 몸이 집에 돌아가야 저녁밥을 마련해 보낼 수 있습니다.”

좌중이 깜짝 놀라 비로소 월사(月沙)의 부인임을 알았다.

월사가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때 감주 왕세정(王世貞)과 문장으로 교유가 되었다. 하루는 찾아가 보았더니, 촉군태수(蜀郡太守)가 그 아버지를 위하여 월사에게 비문을 청하였다. 월사는 다음과 같이 비문을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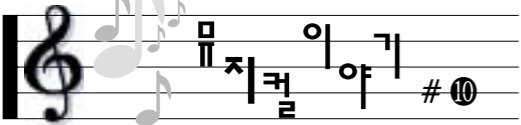
아버지는 충에 죽고 아들은 효에 죽으니

공의 부자는 죽을 때 죽었다고 할 만하다

父死於忠 子死於孝

公之父子 可謂死於死矣

그 사람은 곧 크게 기뻐하였다. 뒤에 예단(禮單)으로 촉군(蜀郡: 촉지방에서 생산되는 비단) 한 수레와 황금 100냥을 보내왔으니, 중국에서 월사에게 예물로 보내는 것이 이처럼 값없이 하였다.



초기 뮤지컬 코미디(Musical Comedy)의 형식적 특징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뮤지컬(Musical)이라는 단어는 뮤지컬 코미디(Musical Comedy)의 약자이다. 진정한 뮤지컬 코미디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뮤지컬 이론가들 사이에서도 견해차이가 크다. 단순하게 음악과 춤과 약간의 드라마가 결합된 작품을 뮤지컬이라고 부른다면 어쨌든 19세기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지도 모르겠다. 또한 배우나 가수들이 노래 중간에 트림을 자신의 신변 이야기나 그 날 주변에서 경험했던 짤막한 사건을 재미있게 엮어 관객에게 들려주던 16세기 세익스피어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여기에서 다시 진정한 뮤지컬 코미디가 언제 시작되었는가를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하듯 북 뮤지컬(Book Musical)이 탄생한 1927년을 최초의 시점으로 거론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북 뮤지컬이란 음악과 춤보다도 대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뮤지컬이다. 북 뮤지컬이 탄생하기 전에 발표된 대부분의 뮤지컬 코미디들은 대본에 있어서 대화 부분이나 줄거리 등이 허술하고 깊이가 없었다. 북 뮤지컬의 대본이 음악과 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북 뮤지컬이 등장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1940년대 까지 보드빌이나 레뷰 등이 계속 존재했었고 꾸준히 관객들을 모았었다.

1929년 시작된 경제공황으로 인해 능력 있는 작곡가들이 브로드웨이를 떠나 할리우드에서 영화음악 작업을 했다. 이런 이유로 인해 1940년대 텔레비전이 등장하기 전까지 보드빌이나 레뷰 스타일의 가벼운 뮤지컬 코미디가 더 성황을 이루었다. 뮤지컬의 슈베르트(Franz Schubert)라고 일컬어지는 어빙 벌린(Irving Berlin) 같은 대 작곡가도 북 뮤지컬보다는 단순한 레뷰나 보드빌 음악을 만드는 데 열중했으며 할리우드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영화음악 작곡을 했다. 최초의 북 뮤지컬의 작곡가였던 제롬 커(Jerome Kern)도 <쇼 보트(Show Boat, 1927)> 이후의 작품들 대부분이 오페레타나 보드빌 수준의 뮤지컬 코미디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역시 할리우드 영화음악에 전념하기도 했다.

초기 뮤지컬 코미디 대본에는 부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만 등장했고 남녀관계는 해피엔딩으로 결말 지워졌으며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다소 멜로드라마적인 엔딩 구조를 따른 것이 많았다. 그렇지만 멜로드라마(Melodrama)와 비교해 볼 때 극적 구성이 허술하기 짝

이 없었다.

따라서 대본이 완성되기도 전에 다시 말하면, 사건과 줄거리가 완성되기도 전에 이미 음악이 먼저 만들어졌으며 대본의 상황과 노래가 완전히 다른 경우도 많았다. 심지어 등장인물의 대사와 전혀 다른 음악이 나오기도 했는데, 예를 들면 여자 주인공이 한 남자의 사랑을 얻은 후 행복 한 심정을 친구에게 노래해주고 있는데 부르는 노래가 남자의 사랑을 받드시 언고야 말겠다는 내용인 것과 같다. 심지어 배우 들 선정에도 문제가 많아 배우들의 스케줄에 따라 등장하는 장면이 달라 대본의 앞뒤가 수시로 바뀌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1920년대 뮤지컬 코미디의 또 다른 형식적 특징 중에 하나는 송 앤 댄스(Song and Dance)에 있었다. <노, 노, 나네트(No, No, Nanette, 1923)>는 송 앤 댄스 뮤지컬 코미디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같은 예외적인 작품인 <빈센트 유만스(Vincent Youmans, 1898~1946)의 뮤지컬 코미디인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히트했던 작품이다.

이 작품은 1920년대에 가장 많은 공연기록을 갖고 있기도 한데 1971년에 나온 리바이벌했으며 다음에 살펴볼 래그타임(Ragtime)의 유행과 함께 오늘날 송 앤 댄스 뮤지컬의 전형을 이

루었다. 그렇지만 이 작품 역시 대본이 뮤지컬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다. 한 번은 연출의 권유로 작곡가가 노래를 만들어 가사도 없이 극에 삽입시켰는데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작사가가 경악을 했었다는 일화 가 있다. 줄거리와는 상관없이 노래 분위기에 가사를 맞추는 전형적인 당시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첨가된 곡이 작품 전체를 통틀어서 당시에 가장 인기 있었던 노래가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오늘날에도 제작자나 연출자의 요구로 인해 첨가되거나 삭제된 노래가 많다. 그렇게 해서 종종 히트한 노래도 있는데 모든 것이 협의 하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1920년대와는 다르다. 초창기 뮤지컬 코미디들은 이처럼 등장인물뿐만 아니라 줄거리가 너무도 허술해서 <노, 노, 나네트>와 같은 예외적인 작품을 제외하고는 오늘날 리바이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윤우영 (대진대 교수, 연출가)

“文學수업 열기 뜨겁다”

제4기 포천문예대학 개강 40여명 참석

(사)한국문인협회 포천시지부(지부장 이재욱)가 주최하고 포천시와 포천시의회, 대진대학교 평생교육원이 후원해 마련한 제4기 포천문예대학 개강식이 40여명의 열성 문학도가 참석한 가운데 4월5일 오후 2시 대진대학교 국제학관 3층에서 개최됐다.

이날 개강식에서 이재욱 한국문인협회 포천시지부장은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12주 동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좋은 글을 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개강식을 가진 포천문예대학은 늘어나는 문학인구의 저변확대와 포천문학의 발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포천시민은 물론 양주

시, 동두천시, 연천군에서도 참여해 문학수업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기도 했다.

4월5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6월 28일까지 12주 동안 진행될 포천문예대학의 강사는 이론과 실재를 포함한 시 부문에는 대진대학교 영문학과 박정근, 양근원 교수, 산문과 소설(문예창작 포함)부문에는 대진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김성렬 교수와 국문학과 정흥모 교수다.

강의는 매주 목요일 오후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며 문학을 사랑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며 수강료는 받지 않으며 포천문예대학 이수자에게는 대진대학교 평생교육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교부

할 예정이다.

이날 첫 강의에 나선 김성렬 대진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는 “문학은 언어예술이며 글쓰기가 문학이 되려면 아름다워야 하며 아름답기 위해서는 글쓰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작품은 감동을 낳아야 하며 감동은 아름다움을 표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의에 참석한 용경자씨(가산면 금현리)는 “참으로 오랜만에 강의실에서 문학수업을 받으니 타인미신을 타고 소녀시절도 되돌아 온 것 같다”며 “앞으로 12주 동안 열심히 참석하여 아름다운 글을 쓰고 싶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95)

「늙은 호랑이」의 죽음

내 고향 포천에는 재미있는 호랑이 이야기가 많이 있어 학교 교과서에까지 등재되는 경우가 있었기에 재미있는 고장임을 자랑하기에 충분하다. 바로 늙은 호랑이의 최후를 재미있게 그려낸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호랑이 고개 옆 숲 속 풀밭에는 크고 늙은 호랑이가 살았는데 그 몸집이 집에만 하고 먹성이 좋아서 장날 무렵에는 호랑이 고개를 넘는 장꾼들을 잡아먹어 마을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하였을 것이다.

“염병을 하다가 땀을 내고 죽을 늙은 호랑이 같으니...” 그래

늙어도 죽지도 않는감...? 장날 늦은 밤 고개도 못 넘고 떨게 만드니...”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죽을 때가 되었는지 늙은 호랑이가 장에 가는 장꾼들을 잡아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숲장수, 성냥장수, 낫장수 그리고 괴물영감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호랑이의 늙은 호로테가 이빨이었습니다. 늙어 이빨이 빠져 이가 한 개도 없이 잇몸 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숲장수 영감도 잡아 먹었으나 꿀꿀 소리를 내며 뱃속으로 미끄러져 미끄러움을 타고 들어갔습니다. 둘째 성냥장수도 잡혀 먹혔으

나 이 또한 미끄러 뱃속으로 슬라이딩을 하였습니다. 낫장수나 괴물이 영감도 뱃속으로 미끄러워 타고 들어간 것은 물론이었을 것입니다. 늙은 호랑이 뱃속친구가 된 숲장수, 성냥장수, 낫장수, 괴물이 영감은 공리 끝에 살아서 뱃속을 탈출할 호랑이 뱃속 탈출 작전을 수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간단하게 작전이 전개되었습니다. 낮으로 호랑이 내장을 잘라서 숲밭을 피워 놓고는 지글지글 구워서 맛나게 먹기도 하고 안심, 등심, 간 등 딱지는 대로 구워 먹었습니다. 어찌 되었을까요? 맛나게 뱃속불고기

(호랑이고개)파티를 하는 동안 늙은 호랑이는 호랑이 고개를 넘어 마을을 뛰어 다니며 미친 듯이 날 뛰며 살려 달라고 ‘어흥’대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호랑이를 살려 낼 수는 없었습니다. 뱃 속 내장을 모두 잘린 호랑이는 피를 토하며 마을 마당에 쓰러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때였습니다. 숲장수, 성냥장수, 낫장수, 괴물이 영감은 호랑이 입을 통해 밖으로 뛰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낮으로 호랑이 곱질을 모두 벗겨서 마을회관 앞뜰에 널었습니다. 또 호랑이 삼코기는 작을 때서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 곱질을 팔아 큰 부자가 되었으며 장님이 되어도 마음놓고 호랑이 고개를 넘을 수 있었습니다. 호랑이 고개의 전해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재미있는 긴 겨울밤을 보내게 한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초대 漢詩

芳春好節(방춘호절)



柳鳳鉉 포천한시사 감사

芳春花柳好時逢 (방춘화류호시봉) 耕梨西嶺始作農 (경간서주시작농) 꽃다운 봄 꽃과 버들이 좋은 때를 만났는데 농장을 갈고 정리하여 농사를 시작하네.

流水盈川通大海 (류수영천통대해) 浮雲出岫聳奇峰 (부운출수송기봉) 유수는 시내에 넘쳐흘러서 바다로 흐르고 부운은 뿌리에서 나와서 기이한 봉우리를 만들었네.

風前沼澤蘊蓬發 (풍전소택운연발) 雨後田園百草茸 (우후전원백초용) 바람 앞에 연못에는 말고고난 연꽃이 피었고 비온뒤에 정원은 백초가 자라고 있네.

麗句休辭重拍手 (려구휴사중박수) 濁豕猶剩未傾缸 (탁료유잉미경항) 아름다운 글귀이지만 청찬일랑 사랑하고 탁주가 아직 남았으니 힘아리 술은 남겨두세.